

# 두산그룹과 함께 조성한 '장성무궁화공원' 개원

장성공원에 9500㎡ 부지에  
46품종 1만1000주 식재  
민관협업 무궁화 공원 중 최대

장성군이 두산그룹과 함께 조성한 '장성무궁화공원'이 27일 정식으로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공원이 조성된 곳은 장성을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장성공원 잔디마당이다. 9500㎡ 부지에 46품종 1만1000주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다. 또 100종의 무궁화로 구성된 품종원도 갖추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200여 종의 무궁화 가운데 100종 가량을 토종으로 분류하는데, 장성무궁화공원에 오면 모든 종류의 토종 무궁화를 만날 수 있다. 민·관 협업으로 조성한 무궁화 공원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장성군이 부지 제공과 배수시설



유두석 장성군수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이 27일 장성무궁화공원 개장식을 가졌다.

등의 기반 공사를 맡았으며 두산그룹은 무궁화 묘목을 마련하고 식재 작업을 전담했다. 그간 두산그룹은 무궁화를 보급하는 사회환원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무궁화가 나라꽃임에도, 제대로 감상할 장소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궁정동에 조성한 무궁화 동산은 산림청 주관

나라꽃 무궁화명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꽃'으로 유명하다. 황룡강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을 노란꽃잔치가 3년 연속 100만 방문을 기록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마을의 빈 공간에 꽃밭을 가꾸는 '게릴라 정원' 조성은 하나의 '지역 문화'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군민들과 함께 '1상가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추진해 거리마다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온 호국의 고장"이라며 "장성무궁화공원을 통해 일상에서도 호국 보훈의 가치를 더욱 드높여 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산림청의 '2022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성군은 이를 통해 장성무궁화공원 명소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성군 경로당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세심한 배려행정 호평



경로당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장성군이 지난 9월부터 지역 내 경로당에 설치 중인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가 고령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호평을 얻고 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는 곳은 경로당 출입문 벽면과 화장실 내부다.

출입문의 경우 신발을 신거나 벗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을 경우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군이 설치 중인 안전손잡이는 표면이 실리온 재질로 되어 있어 젖은 손으로 만져도 미끄럽지 않으며 야광 기능이 있어 주위가 어두워도 눈에 띈다. 최근 손잡이 설치를 마친 백계2리 경로당을 이용한 주민 김 모 씨는 "허리가 아파 경로당 출입이 늘 조심스러웠는데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마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월까지 지역 내 모든 경로당에 안전손잡이 설치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회 일자리 창출 등 사업 46건 논의

강진군이 27일 민선7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정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1월부터 시행되는 워드 코로나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분야별 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득향상과 문화예술 접목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 군정 5대 방침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46건을 비롯해 291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일자리 분야는 ▲강진산단 조기 입주 및 제2일 반산업단지 조성 ▲신규마을 및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등을 통한 기업유치와 외부 근로자 유입에 대비하고, 체류형 관광분야는 ▲푸소(FU-SO)를 활용한 생활관광 활성화(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석문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다.

농업분야는 ▲생산자와 소비자인 직거래 활성화 ▲화훼 온라인 직거래 판매 시스템 강화 ▲강진 대표 식품 개발(목은인, 쌀귀리 등) ▲축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실증 사업 등 6차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인정사업 및 농촌협약사업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교통SOC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안전·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공공산후조리원·육아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100원 택시 및 1000원 버스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워드 코로나 안심 축제...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열린다

내달 5일부터 17일간

엑스포공원 일대 다양한 볼거리

가을 축제의 대명사인 '20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1월 5일부터 17일간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구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향대전에는 국화분재와 조형물 그리고 미디어아트까지 다양한 기획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축제장뿐만 아니라 함평천 생태습지공원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어 가을 정취를 물씬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습지공원에는 길을 따라 펼쳐진 넓은 국화들녘과 울긋불긋한 핑크몰리, 금억새 탐방길 등 가족·지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조성돼 있다.

또 함평천 양안으로는 코스모스가 만개해 있으며 밀원수 존에는 수국, 라벤다, 역사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중



젊은이들이 국화와 핑크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함평 국향대전은 11월 5일부터 17일간 열린다. <함평군 제공>

단했던 국향대전이 오랜만에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며 "면밀히 준비해 '안심·안전 축제'로 치르

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담양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3개월치 지원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 대상근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총 3개월분을 지급하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20%,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등급별부과액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월15일까지로,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damyang.go.kr)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 풀뿌리경제과(061-380-3045)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화순 남산공원 국화동산 사전예약제 관람 시작

화려한 가을국화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화순 남산공원 국화동산의 사전예약제 관람이 시작했다. 화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국화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국화축제를 기다려온 군민과 방문객에게 가을국화의 풍성함과 정취를 선사하기로 했다.

예약은 '화순 국화동산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관람은 하루 4차례, 관람 인원은 하루 1000명으로 제한한다. 당일 예약은 할 수 없다.

관람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 예약하면 되고 화순군민은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국화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람 첫 주말인 오는 30일은 제한인원인 1000명 예약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